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목차	2
작품연표	3

번호	작품명	연대	발표지	유형
1	임께서 부르시면	1931.08.	동광(東光)	시
2	선물	1931.10.	시문학(詩文學)	시
3	그 꿈을 깨우면 어떻게 할까요	1931.10.	동광(東光)	시
4	나의 꿈을 엿보시겠읍니까	1932.01.	문예월간(文藝月刊)	시
5	푸른 하늘 바라보는 행복이 있다	1932	동아일보(東亞日報)	시
6	산새는 어디서 노래하나	1932	동아일보(東亞日報)	시
7	바다는 우리에게 풀피리를 권하나니	1932	동아일보(東亞日報)	시
8	어머니여	1932	삼천리(三千里)	시
9	봄의 유혹(誘惑)	1932.07.~08	동방평론(東方評論)	시
10	촛불한 밤	1932.07.08	동방평론(東方評論)	시
11	어는 적은 풍경(風景)	1932.12.	신생(新生)	시
12	영산도(詠山島)	1933.03.	신생(新生)	수필
13	봄이여 당신은 나의 침대를 지킬 수가 있읍니까?	1933.03.	삼천리(三千里)	시
14	시인(詩人)	1933.09.	신생(新生)	시
15	홀륭한 새벽이여 그 푸른 하늘을 찾으러 갑시다.	1933.10.	신동아(新東亞)	시
16	추과삼제(秋果三題)[울(栗)?시(柿)?석류(石榴)]	1933.10.05~07	조선일보(朝鮮日報)	시
17	아직 촉(燭)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	1933.11.30	조선일보(朝鮮日報)	시
18	가을이 먼 길을 떠나랴 하나니	1933.12.	삼천리(三千里)	시
19	오후(午後)의 명상(冥想)	1934.03.27	중앙일보(中央日報)	시
20	봄이여! 너는 비오는 틈을 타서	1934.03.		시
21	새벽을 기다리는 마음	1934.03.20	중앙일보(中央日報)	시
22	나의 침실(寢室)의 문을 두드리는 자(者)	1934.03.20	중앙일보(中央日報)	시

22	는 누구냐	1934.03.20	중앙일보(中央日報)	시
23	산(山)으로 가는 마음/바람	1934.04.	문학(文學)	시
24	병상(病狀)에서 띄우는 편지 1	1934.05.05	중앙일보(中央日報)	시
25	병상(病狀)에서 띄우는 편지 2	1934.05.06	중앙일보(中央日報)	시
26	화려한 풍선을 타고	1934.06.	중앙(中央)	시
27	오월(五月) 아침	1934.07.	신인문학(新人文學)	시
28	머언 항해(航海)	1934.08.	중앙(中央)	시
29	대화(對話)	1934.09.	중앙(中央)	시
30	머언 날이 지내면	1934.09.23	중앙일보(中央日報)	시
31	정적(靜寂)의 미(美)	1934	월간매신(月刊每申)	시
32	화석(化石)이 되고 싶어	1934.10.	신인문학(新人文學)	시
33	나는 어둠을 꺼안는다	1935.01.	시원(詩苑)	시
34	초춘음(初春吟)	1935.03.05	조선일보(朝鮮日報)	시
35	병상야음(病床夜吟)	1935.03.07	중앙일보(中央日報)	시
36	밤을 맞이하는 노래	1935.03.	개벽(開闢)	시
37	밤이여	1935.03.	시원(詩苑)	시
38	그것은 단조(單調)한 비극(悲劇)이 아니다	1935.03.	시원(詩苑)	시
39	푸른 커튼	1935.03.	시원(詩苑)	시
40	석양(夕陽)	1935.04.	중앙(中央)	시
41	푸른 침실(寢室)	1935.04.	시원(詩苑)	시
42	해변(海邊) 즉흥소시(卽興小詩)	1935.05.	시원(詩苑)	시
43	토끼의 향수(鄉愁)	1935.08.	신인문학(新人文學)	시
44	시론(詩論)	1935	중앙(中央)	시
45	정원(庭園)	1935	중앙(中央)	시
46	서가(書架)	1935	중앙(中央)	시
47	채석강(彩石江) 가는 길	1935	조선일보(朝鮮日報)	시
48	푸른 하늘	1935.11.	조광(朝光)	시

49	물새	1935.11.	조광(朝光)	시
50	조개껍질	1935.11.	조광(朝光)	시
51	수선화(水仙花)	1936.01.31	조선일보(朝鮮日報)	시
52	화병(花瓶)과 노시인(老詩人)	1936.02.02~08	조선일보(朝鮮日報)	평론
53	눈오는 밤	1936.7~8합병호	조선문학(朝鮮文學)	시
54	송하론고(松下論古)	1936.06.	중앙(中央)	시
55	이 밤이 너무나 길지 않습니까	1936.12.	여성(女性)	시
56	은행(銀杏)나무 선 정원도(庭園圖)	1937.01.	시건설(詩建設)	시
57	난초(蘭草)	1937.02.	조선문학(朝鮮文學)	시
58	수선화(水仙花)	1937.02.	시건설(詩建設)	시
59	황혼(黃昏)이 떠날 임시(臨時)	1937.03.	풍림(風林)	시
60	참회(懺悔)	1937.03.	시건설(詩建設)	시
61	정지용론(鄭芝溶論)	1937.04.	풍림(風林)	평론
62	슬픈 이야기	1937.06.	백광(白光)	시
63	시(詩) 아닌 시(詩)	1938.01.25	동아일보(東亞日報)	평론
64	산수도(山水圖)	1938.01.	조광(朝光)타임스	시
65	옛 이야기	1938.02.	시인춘추(詩人春秋)	시
66	언제나 평온(平穩)한 얼굴을 볼 수 있답니까?	1938.02.	여성(女性)	시
67	청산백운도(靑山白雲圖)	1938.05.	시건설(詩建設)	시
68	새해 노래	1939.01.03	동아일보(東亞日報)	시
69	월견초(月見草)필 무렵	1939.01.	조선문학(朝鮮文學)	시
70	고운 심장(心臟)	1939.03.05	조선일보(朝鮮日報)	시
71	登高(登高)	1939.05.	시학(詩學)	시
72	들길에 서서	1939.05.	문장(文章)	시
73	첫사랑	1939.07.	조선문학(朝鮮文學)	시
74	작은 짐승	1939.07.	문장(文章)	시

75	서정가(抒情歌)	1939.07.	시학(詩學)	시
76	지도(地圖)	1939.07.	시건설(詩建設)	시
77	방(房)	1939.09.	학우구락부(學友俱樂部)	시
78	슬픈 구도(構圖)	1939.10.	조광(朝光)	시
79	삼행시(三行詩)	1939.10.	시학(詩學)	시
80	슬픈 전설(傳說)을 지니고	1939.11.	문장(文章)	시
81	가을을 보는 마음	1939.12.	청색지(靑色紙)	시
82	춧불	1939	인문평론사(人文評論社)	시집
83	꿈	1940.01.	시학(詩學)	시
84	산협인상(山峽印象)	1940.02.	인문평론(人文評論)	시
85	사행시(四行詩) 2편	1940.03.	조광(朝光)	시
86	슬픈 서백리아(西伯利亞)	1940.04.	여성(女性)	시
87	애가(哀歌)	1940.09.	조광(朝光)	시
88	대숲에 서서	1941.01.	인문평론(人文評論)	시
89	어느 지류(支流)에 서서	1941.03.	문장(文章)	시
90	소년(少年)을 위한 목가(牧歌)	1941.03.	신세기(新世紀)	시
91	변산일기(邊山日記)	1941.04.	삼천리(三千里)	시
92	오월(五月)이 돌아오면	1941.04.	춘추(春秋)	시
93	박춘길(朴春吉) 시집(詩集) 「화병(花瓶)」을 읽고	1941.07.07	매일신보(每日申報)	평론
94	별리부(別離賦)	1941.08.23	매일신보(每日申報)	시
95	산보로(散步路)	1942.07.	조광(朝光)	시
96	슬픈 목가(牧歌)	1947	낭주문화사(浪州文化社)	시집
97	춘추(春秋)	1952.03.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98	애사삼장(哀詞三章)	1952.03.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99	늪은 비둘기	1952.03.	태백신문(太白新聞)	시
100	슬픈 평행선(平行線)	1952.04.	태백신문(太白新聞)	시

101	망향(望鄕)의 노래	1952.04.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102	귀향시초(歸鄕詩抄)	1952.04.	태백신문(太白新聞)	시
103	항구(港口)에서	1952.05.	군산신문(群山新聞)	시
104	다시 제주도(濟州道)	1952.05.	태백신문(太白新聞)	시
105	소양강(昭陽江) 삼장(三章)	1952.08.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106	여정(旅程)	1952.09.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107	금산사(金山寺)	1952.10.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108	속(續) 소양강(昭陽江) 단장(斷章)	1952.10.01~23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109	발음(發音)	1952.12.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110	근영수제(近詠數題)	1952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111	산산산(山山山)	1953.01.	학원(學園)	시
112	가람론(論)	1953.12.	신조(新調)	평론
113	소곡(小曲)	1954.01.	삼남일보(三南日報)	시
114	대화(對話)	1954.03.18	태백신문(太白新聞)	시
115	스켓취	1954.06.06~07	삼남일보(三南日報)	시
116	심장(心臟)이 없는 세계	1955.09.16	한국일보	시
117	대춘부(待春賦)	1956.01.01	삼남일보(三南日報)	시
118	빙하(氷河)	1956	정음사(正音社)	시집
119	역사(歷史)	1957.03.03	전북대학신문(全北大學新聞)	시
120	춘란(春蘭)이 만개(滿開)	1958.09.	자유문학(自由文學)	수필
121	시(詩)를 쓰려는 청년(靑年)에게	1958.10.	신문예(新文藝)	수필
122	문학적(文學的) 자서전(自敘傳)	1958.06.	신문예(新文藝)	평론
123	동방반명(東方半明)	1960.01.01	전북대학신문(全北大學新聞)	시
124	전아사(錢牙詞)	1960.01.01	삼남일보(三南日報)	시
125	쥐구멍에 햇볕을 보내는 민주주의(民主主義)의 노래	1960.01.01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126	봄을 잊을 수는 없다	1960.01.16	전북대학신문(全北大學新聞)	시
127	탐라식물지(耽羅植物誌)	1960.02.01~8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
128	비사벌송가(比斯伐頌歌)	1960.02.02	연합신문(聯合新聞)	시
129	단장서곡(斷腸序曲)	1960.03.30	동아일보(東亞日報)	시
130	우리들의 형제(兄弟)를 잊지마라	1960.04.	전북대학신문(全北大學新聞)	시
131	한국(韓國)의 현대시(現代詩)	1960.05.	자유문학(自由文學)	평론
132	산방일기(山房日記)	1960.11.30	한국일보	시
133	가로수	1960.01.	교육주보(教育週報)	시
134	남해서정시초(南海抒情詩抄)	1963.01.18~23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135	사월(四月)은 강물처럼	1963.04.07	서울신문	시
136	다시 들길에 서서	1963.06.22	서울신문	시
137	애가(哀歌)	1963.06.22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138	갑오동학혁명(甲午東學革命)의 노래	1963.09.29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139	꽃보라 속에 서서	1964.01.01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140	봄은 있다	1964.01.01	삼남일보(三南日報)	시
141	한 줄기 햇살로	1964.01.10	동아일보(東亞日報)	시
142	이국(異國) 같은 거리에서	1964.01.29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143	오랜 시간이 우리들의 뒤로 물러 간 뒤	1964.01.29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144	곡창(穀倉)의 새해	1965.01.01	경향신문(京鄉新聞)	시
145	하도 햇별이 다낭해서	1965.01.10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146	송시(頌詩)	1965.05.01	삼남일보(三南日報)	시
147	축시(祝詩)	1965.07.	전기기술	시
148	오순도순 살아 보자요	1965.10.08	중앙일보(中央日報)	시
149	그런 날은 언제나 올까	1965.12.	한양(漢陽)	시
150	여명즉전(黎明卽前)	1966.01.01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151	춘향전(春香傳) 서시(序詩)	1966.04.	한양(漢陽)	시
152	문(門)밖에 봄이 있다	1966.05.03	경향신문(京鄉新聞)	시
153	광한루(廣寒樓)	1966.05.04	중앙일보(中央日報)	시
154	푸른 문(門)밖에 서서	1966.05.14	영생대학보(永生大學報)	시

155	반신(返信)	1966.07.03	한국일보	시
156	어린 봄의 노래	1966.10.	한양(漢陽)	시
157	양(羊)에 붙이는 글	1967.01.01	삼남일보(三南日報)	시
158	초설	1967.02.	여상(女象)	시
159	꿈의 일부(一部)	1967.02.	신동아(新東亞)	시
160	헐벗은 산하(山河)에 살아도	1967.03.12	삼남일보(三南日報)	시
161	독백	1967.05	한국문학(韓國文學)	시
162	나무 둘맹이여	1967.11.30	한국일보	시
163	산(山)처럼	1967.12.	도정(道程)	시
164	산(山)의 서곡(序曲)	1967	가림출판사(嘉林出版社)	시집
165	까치가 울고 있었다	1968.01.	학원(學園)	시
166	계시(啓示)를 기다리기 전에	1968.02.	영생학보(永生學報)	시
167	눈 맞춤	1968.02.	사상계(思想界)	시
168	입춘(立春)	1968.03.	현대시학(現代詩學)	시
169	사월(四月)은	1968.04.	여원(女苑)	시
170	파초(芭蕉)와 이웃하고	1968.07.26	동아일보(東亞日報)	시
171	조용한 분노(忿怒)	1968.08.	현대문학(現代文學)	시
172	추야장고조(秋夜長古調)	1968.10.	교육평론(教育評論)	시
173	백록담(白鹿潭)에서	1968.11.	월간문학(月刊文學)	시
174	곡(哭)가람	1968.12.01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175	영춘사(迎春詞)	1969.01.01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176	한라산(漢拏山)은 서서	1969.01.01	한국일보	시
177	저 무수(無壽) 같이	1969.01.01	전남일보(全南日報)	시
178	입춘전후(立春前後)	1969.02.07	주간조선(週刊朝鮮)	시
179	동박새	1969.02.07	영생대학보(永生大學報)	시
180	저 일월성신(日月星辰)과 더불어	1969.05.01	전북매일(全北每日)	시
181	추수(奏秋)	1969.05	현대문학(現代文學)	시

182	아름다운 지구(地球)	1969.07.21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183	서울	1969.08.	월간문학(月刊文學)	시
184	1966년 5월 어느 날	1969.08.	월간문학(月刊文學)	시
185	비가(悲歌)	1969.08.	신동아(新東亞)	시
186	파도(波濤)	1969.08.	전북문학(全北文學)	시
187	내일을 생각하고	1969.09.	주부생활(主婦生活)	시
188	귀-해변서정(海邊抒情)	1969.09.	월간중앙(月刊中央)	시
189	산하(山河)는 변할지언정	1969.10.10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190	한 톨의 밀알을 지니고	1970.01.01	전북매일(全北每日)	시
191	정정한 나무들	1970.05.01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192	대바람 소리	1970.05.	현대시학(現代詩學)	시
193	구천동(九千洞)	1970.06.	전북문화(全北文化)	시
194	입춘(立春)	1970.07.	현대시학(現代詩學)	시
195	소곡(小曲)	1970.07.	전북문화(全北文化)	시
196	등반(登攀)	1970.10.	전북문화(全北文化)	시
197	버드나무 심은 뜻은	1970.10.	현대시조	시
198	빛을 모반(謬反)하는 저기압(低氣壓)이	1970.11.	월간문학(月刊文學)	시
199	나랑 함께	1970.11.	전북일보(全北日報)	시
200	대바람 소리	1970	문원사(文苑社)	시집
201	잊어버릴 수 없다	1971.01.	월간전북(月刊全北)	시
202	행정(行程)	1971.01.	전북매일신문(全北每日新聞)	시
203	입춘(立春)	1971.03.	전북문학(全北文學)	시
204	저 햇별의 계단(階段)에서	1971.04.	유네스코	시
205	이팝나무 옮기던 나는	1971.05.	세대(世代)	시
206	더덕	1971.07.	향토(鄉土)	시
207	외출한 마음	1971.07.	나라사랑	시
208	귀-산정(觀音亭)서정	1971.10.	월간중앙(月刊中央)	시

208	관음소심(觀音素心)이당	1971.10.	결간중앙(月刊中央)	시
209	바람을 따라 외 2편	1971.10.	문화비평	시
210	원정(園丁)의 설화(說話)	1971.12.	창작과비평(創作과批評)	시
211	난(蘭)	1971.11.	신동아(新東亞)	시
212	임종(臨終)	1972.01.	월간문학(月刊文學)	시
213	조종(吊鐘)	1972.02.	창조(創造)	시
214	지전(志全)	1972.07.	전북문학(全北文學)	시
215	한두 마리와 더불어	1972.07.	향토(鄉土)	시
216	가까이 오고 있는 날	1972.10.	월간문학(月刊文學)	시
217	오한(惡寒)	1972.10.	문학사상(文學思想)	시
218	저 거문고 소리 들으며	1973.01.	신동아(新東亞)	시
219	등고(登高)	1973.01.	산(山)	시
220	난(蘭)이랑 살다보면	1973.01.	자유공론(自由公論)	시
221	청매(靑梅) 옆에 서서	1973.03.	전북문학(全北文學)	시
222	춘수(春愁)	1973.04.	월간중앙(月刊中央)	시
223	나비처럼	1973.04.	한양(漢陽)	시
224	꽃사태	1973.05.	세대(世代)	시
225	서향(瑞香) 내음이사	1973.05.	전북문학(全北文學)	시
226	서귀포(西歸浦)에서	1973.05.27	한국일보	시
227	천지(天地)에 메아리 칠 내일(來日)을	1973.06.01	전북신문(全北新聞)	시
228	모란	1973.06.	새교육	시
229	제주도(濟州島) 바다	1973.08.	시문학(詩文學)	시
230	동박새 오던 날	1973.09.	시문학(詩文學)	시
231	어느 날	1973.11.	한국문학(韓國文學)	시
232	정원소묘(庭園素描)	1973.12.	창작과비평(創作과批評)	시
233	병상(病床)에서	1974.01.15	한국일보	시
234	분향(焚香)	1974.01.	세대(世代)	시

235	고향(故鄕)에 가서	1974.01.	중앙(中央)	시
236	제주도(濟州島) 철쭉	1974.01.	시문학(詩文學)	시
237	분발 속에서	1974.01.	새교육	시
238	산(山)엘 가서	1974.01.	산(山)	시
239	돌무덤	1974.01.	전북문학(全北文學)	시
240	병상음(病床吟)	1974.03.09	서울신문	시
241	나도 산(山)에 맡기리로다	1974.06.	산(山)	시
242	가슴에 지는 낙화(落花)소리	1974.07.	문학사상(文學思想)	시
243	난초앞에 어둠이 나릴 때	1974.07.	월간중앙(月刊中央)	시
244	대잠(大岑) 소리	1974.07.07	한국일보	시
245	뜰을 그리며	1974.07.08	동아일보(東亞日報)	시
246	난초(蘭草) 앞에 어둠이 내리면	1974	지식산업사(知識産業社)	시집
247	슬픈 목가(牧歌)	1975	삼중당(三中堂)	시집
248	신석정(辛夕汀) [한국시문학대계(韓國詩文學大系)]	1985	지식산업사(知識産業社)	시집
249	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	1987	자유문학사(自由文學社)	시집
250	소년을 위한 목가	1989	원음예술사	시집

COPYRIGHT © GANGJIN-GUN. ALL RIGHT
RESERVED.

GANGJIN

Web Contents

